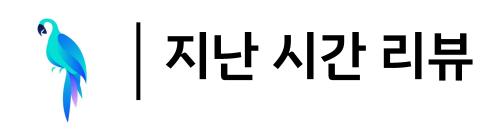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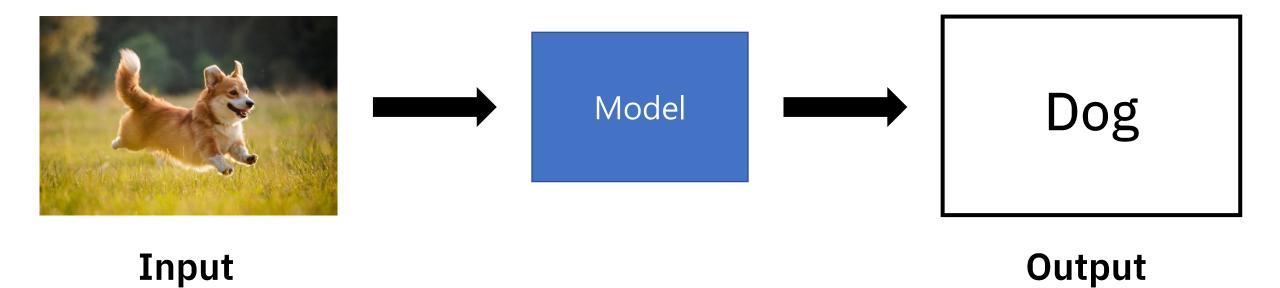


# Parrot Deep Learning Session 03. Optimiz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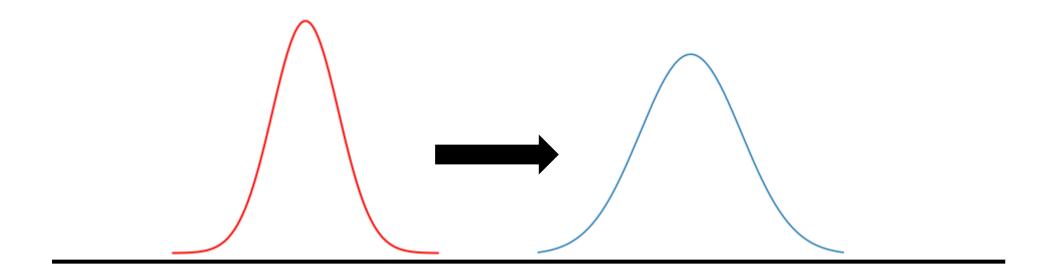
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모델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.



# 지난 시간 리뷰

그런데 "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분포에서 나온다"라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,

내가 만든 모델의 분포  $P_{model}$ 이 실제 데이터의 분포  $P_{data}$  와 같아지도록 하면 됩니다.





### How? 모든 샘플에 대한 Likelihood를 최대화



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(MLE)

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떤 데이터가 현재 내가 만든 모델의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(정확히는 likelihood)를 최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

$$\hat{\mathbf{w}} = rg \max_{\mathbf{w}} p_{model}(\mathbf{X}|\mathbf{w})$$

뭔가 무서운 수식이 보이지만 현재 파라미터 W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X가 나왔을 확률을 최대로 하는 W를 고른다는 의미입니다.



# 지난 시간 리뷰

### 그런데 데이터들은 independent 하고 identically 하게 뽑히므로...

$$\hat{\mathbf{w}} = rg \max_{\mathbf{w}} p_{model}(\mathbf{X}|\mathbf{w})$$
  $\stackrel{ ext{iid}}{=} rg \max_{\mathbf{w}} \prod_{i=1}^N p_{model}(x_i|\mathbf{W})$  (1) 각각의 likelihood가 곱셈으로 묶이고 (독립사건생각하시면 편합니다)  $rg \max_{\mathbf{w}} \sum_{i=1}^N \log p_{model}(x_i|\mathbf{W})$  (2) 로그를 씌우면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

"로그를 씌웠는데 왜 똑같나요?"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친구들(likelihood)을 최대로 하는 W이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합니다.



# 지난 시간 리뷰

# 보통 로그를 씌운 likelihood를 사용합니다 (Log likelihood) 여기서 모델의 분포함수를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loss 함수 형태가 결정

$$egin{aligned} \hat{\mathbf{w}} &= rg \max_{\mathrm{w}} \, p_{model}(\mathrm{X}|\mathrm{w}) \ &\stackrel{\mathrm{iid}}{=} rg \max_{\mathrm{w}} \, \prod_{i=1}^{N} p_{model}(x_i|\mathrm{W}) \ &= rg \max_{\mathrm{w}} \, \sum_{i=1}^{N} \log \, p_{model}(x_i|\mathrm{W}) \end{aligned}$$

Laplace - L1 loss

$$p(y)=rac{1}{2b}e^{(-rac{|y-\mu|}{b})}$$

Gaussian – L2 loss

$$p(y)=rac{1}{\sqrt{2\pi\sigma^2}}e^{(-rac{(y-\mu)^2}{2\sigma^2})}$$



# 이유...? (참고만 하세요!)

$$rg\max_{\mathbf{w}} \sum_{i=1}^N \log p_{model}(x_i|\mathbf{W})$$
 시작은 항상 log likelihood를 최대화 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

### Laplace - L1 loss

$$p(y)=rac{1}{2b}e^{(-rac{|y-\mu|}{b})}$$

$$\hat{\mathbf{w}}_{ML} 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ax}} \sum_{i=1}^{N} \log p_{model}(y_i | \mathbf{x}_i, \mathbf{w})$$

$$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ax}} - \sum_{i=1}^{N} \log(2b) - \sum_{i=1}^{N} \frac{1}{b} |f_{\mathbf{w}}(\mathbf{x}_i) - y_i|$$

$$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ax}} - \sum_{i=1}^{N} |f_{\mathbf{w}}(\mathbf{x}_i) - y_i|$$

$$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in}} \sum_{i=1}^{N} \underbrace{|f_{\mathbf{w}}(\mathbf{x}_i) - y_i|}_{I + loss}$$

### Gaussian - L2 loss

$$p(y)=rac{1}{\sqrt{2\pi\sigma^2}}e^{(-rac{(y-\mu)^2}{2\sigma^2}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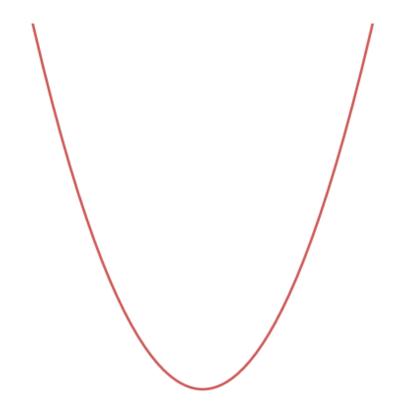
$$\begin{split} \hat{\mathbf{w}}_{ML} &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ax}} \sum_{i=1}^{N} \log p_{model}(y_i | \mathbf{x}_i, \mathbf{w}) \\ &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ax}} - \sum_{i=1}^{N} \frac{1}{2} \log(2\pi\sigma^2) - \sum_{i=1}^{N} \frac{1}{2\sigma^2} \left( f_{\mathbf{w}}(\mathbf{x}_i) - y_i \right)^2 \\ &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ax}} - \sum_{i=1}^{N} \left( f_{\mathbf{w}}(\mathbf{x}_i) - y_i \right)^2 \\ &= \underset{\mathbf{w}}{\operatorname{argmin}} \sum_{i=1}^{N} \underbrace{\left( f_{\mathbf{w}}(\mathbf{x}_i) - y_i \right)^2}_{L_2 \operatorname{Loss}} \end{split}$$

이제 loss 함수가 어떻게 나왔고 미분하는 방법 (Back propagation)도 알고 있습니다.

이제 loss 함수만 줄이면 됩니다!



# Optimization



- 1.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기
- **2. 계속 찍기** (과연제가 그냥 농담으로 넣은 걸까요



### 1.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기

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한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- 1. 함수가 quadratic하다. (2차 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)
- 2. convex 함이 보장 (아래로 볼록 생각하시면 됩니다)

불행히도 대다수의 loss 함수에서 위 조건들이 보장이 안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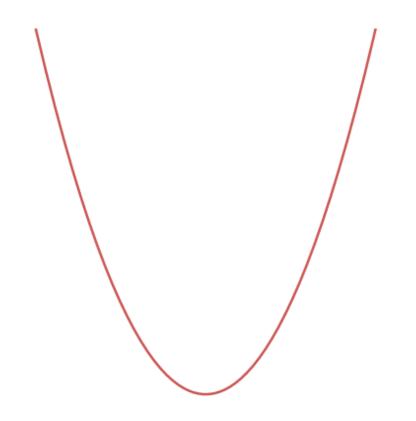
### 1.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기 (이계도함수를 기억하시는 분들 한정)

예전 고등학교에서는 n차함수에 대하여

- 1)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들을 구하고
- 2) 한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극솟값 (local minima)이 되고
- 3) (구간이 정해져 있다면)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솟값 (global minima) 라고 구했습니다.

### 불행히도 이계도함수 (Hessian matrix) 구하는 cost가 상당히 큽니다...

(dataset size를 n, parameter size를 p라고 할 때  $O(np^2+p^3)$ , 최적화하면 O(np+rt\*p) (여기서  $rt\sim O(n)$ ) 입니다.)



### <del>1.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기</del>

### 2. 계속 찍기

물론 무작정 찍지 말고 '잘' 찍으면 됩니다.



# **Gradient Descent**

#### (간략화 버전)

- 1. 현재 위치(W)에서 loss 함수가 줄어드는 방향을 계산합니다.
- 2. 해당 방향으로 사전에 정한 값 (학습율이라고 합니다) 만큼 움직입니다.

3. 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.

여기서 기울기를 Gradient 라고 하고,

위 방식을 Gradient Descent(GD) 라고 합니다.



# **Gradient Descent**

#### (디테일 버전)

- 1. 가중치를 초기화하고( $W^0$ ), 학습률  $\eta$ 을 정합니다.
- 2. 모든 데이터포인트  $i \in \{0, ..., N\}$ 에 대하여 다음을 시행합니다.
  - a) forward propagate를 통해 현재 prediction을 구합니다
  - b) 이를 사용해서 Backpropagation으로 현재 gradient를 구합니다.
- 3.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합니다.
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- \eta rac{1}{N} \sum_i 
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i(\mathbf{w}^t)$$

4. 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.

하지만 모든 데이터포인트에 대해 진행하는 점을 생각해봅시다.

일반적으로 수십만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,

모델의 파라미터 또한 일반적으로 상당히 큽니다.

따라서 한번의 과정 (iteration)에서 cost가 상당히 큽니다.



## **Stochastic Gradient Descent**

굳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 계산하지 말고 좀 더 작은 subset인 Batch, B 를 랜덤하게 뽑아서 계산합시다.

- 1. 가중치를 초기화하고( $W^0$ ) 학습률 n을 정합니다.
- **2.** 랜덤하게 뽑은 데이터포인트  $i \in \{0, ..., B\}$ 에 대하여 다음을 시행합니다.
  - a) forward propagate를 통해 현재 prediction을 구합니다
  - b) 이를 사용해서 Backpropagation으로 현재 gradient를 구합니다.
- 3.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합니다.
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- \eta \frac{1}{B} \sum_b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b(\mathbf{w}^t)$$

4. 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.

이제 계산 cost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덜 차지합니다.



# Stochastic Gradient Descent

#### 이거 왜 되나요...? (역시 참고용 입니다)

• 전체 훈련셋에서의 total los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.

$$\frac{1}{N} \sum_{i} \mathcal{L}_{i}(\mathbf{w}^{t}) = \mathbb{E}_{i \sim \mathcal{U}\{1, N\}} \left[ \mathcal{L}_{i}(\mathbf{w}^{t}) \right]$$

• 이런 Expectation 값은 훨씬 작은 subset 인 batch, B에 근사된다.

$$\mathbb{E}_{i \sim \mathcal{U}\{1,N\}} \left[ \mathcal{L}_i(\mathbf{w}^t) \right] \approx \frac{1}{B} \sum_b \mathcal{L}_b(\mathbf{w}^t)$$

•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하게 되기에 전체 gradient를 batch의 gradient로 사용할 수 있다.

$$\frac{1}{N} \sum_{i}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i}(\mathbf{w}^{t}) = \mathbb{E}_{i \sim \mathcal{U}\{1, N\}} \left[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i}(\mathbf{w}^{t}) \right] \approx \frac{1}{B} \sum_{b}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b}(\mathbf{w}^{t})$$



### Learning rate

- **1.** 가중치를 초기화하고( $W^0$ ) 학습률  $\eta$ 을 정합니다.
- 2. 랜덤하게 뽑은 데이터포인트  $i \in \{0, ..., B\}$ 에 대하여 다음을 시행합니다.
  - a) forward propagate를 통해 현재 prediction을 구합니다
  - b) 이를 사용해서 Backpropagation으로 현재 gradient를 구합니다.
- 3.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합니다.
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- \eta \frac{1}{B} \sum_b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b(\mathbf{w}^t)$$

4. 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.

#### 학습률을 어떻게 정하는 지를 생각해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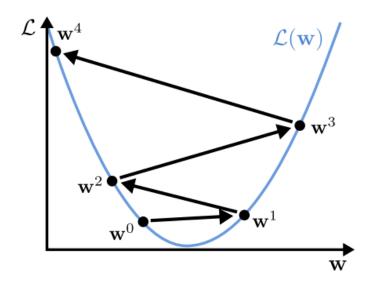


### Scale of Learning rate

#### Large Learning rate

#### **Gradient Descent:**

$$\mathbf{w}^0 = \mathbf{w}^{\mathsf{init}}$$
  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- \eta \, 
abla_{\mathbf{w}} \mathcal{L}(\mathbf{w}^t)$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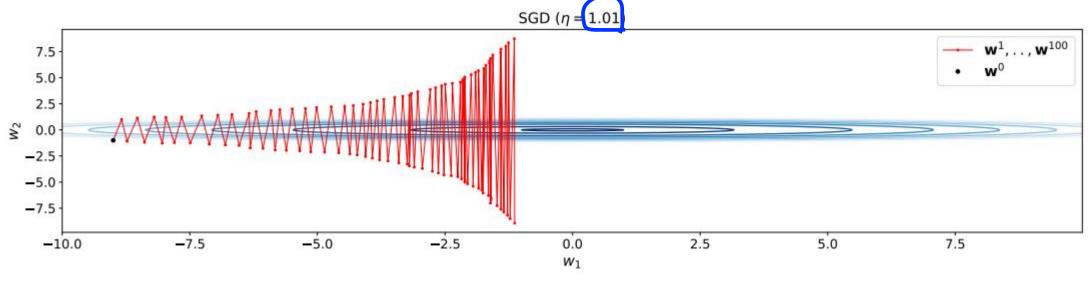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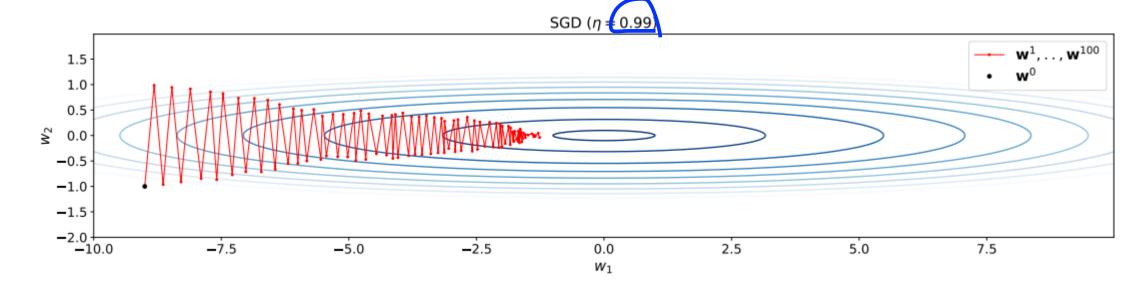
그렇다고 작게 설정한다면 내려오는데 한세월 걸릴 겁니다.

(산 내려오는데 5분에 한 계단씩 내려오는 거랑 같습니다)



## Scale of Learning r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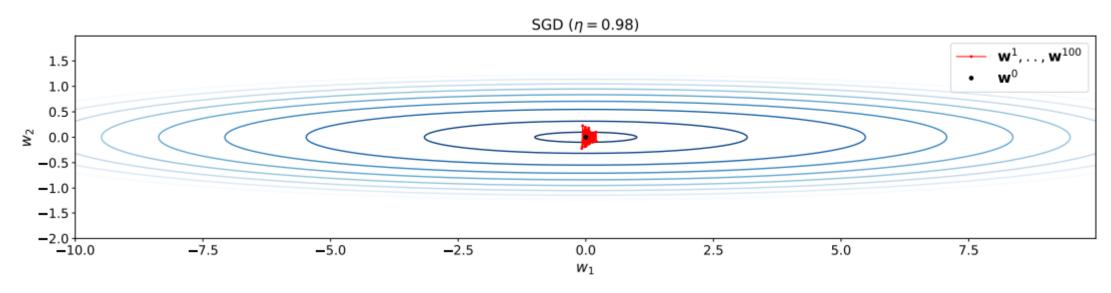


일반적으로 큰 학습률로 학습 시켜보고 불안정하다면 학습률을 낮추는 식으로 진행합니다.

하지만 이래도 여전히 최적점에 수렴하진 않습니다.



## **Fixed Learning rate**


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- \frac{\mathbf{\eta}}{B} \sum_b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b(\mathbf{w}^t)$$

어찌어찌 최적점 근처에 오더라도 그 주변에서 진동하고 수렴하지 않습니다. 위 그림은 아예 처음부터 w를 최적 값으로 설정했지만 진동합니다. (batch를 랜덤하게 뽑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)



# Learning rate Scheduling

계속해서 우리가 가중치 W를 최적화 시킨다면 언젠가는 최적점에 도착해서 멈춰야 합니다. (수렴) 즉, 언젠가는 W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.
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{t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{t})$$

$$\mathbf{w}^{1} = \mathbf{w}^{0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0}$$

$$\mathbf{w}^{2} = \mathbf{w}^{1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1} = \mathbf{w}^{0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0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1}$$

$$\mathbf{w}^{3} = \mathbf{w}^{2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2} = \underbrace{\mathbf{w}^{0} - 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0}}_{=\mathbf{a}_{1}} \underbrace{-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1}}_{=\mathbf{a}_{2}} \underbrace{-\eta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2}}_{=\mathbf{a}_{3}}$$



# Learning rate Scheduling

가중치 W를 하나의 series (급수) 로 생각해볼 때, 이 series가 수렴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$$\sum_{t=1}^{\infty} \eta_t = \infty \qquad \text{and} \qquad \sum_{t=1}^{\infty} \eta_t^2 < \infty$$

이를 만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즉, 시간이 지남에 따라 <mark>학습률이 감소</mark>하면 됩니다.

$$\eta_t = \frac{\eta}{t}$$



# Learning rate Schedul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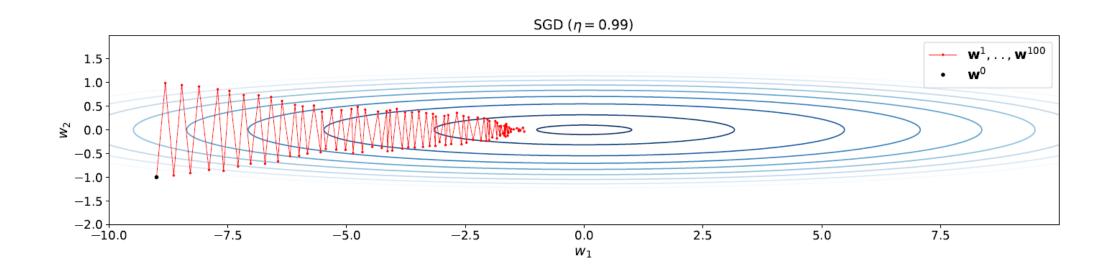
#### 다양한 LR 스케줄러가 나와있기에 상황에 따라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

(COSINEANNEALINGLR 을 최근 대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.)

lr_scheduler.LambdaLR	Set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to the initial Ir times a given function.
lr_scheduler.MultiplicativeLR	Multiply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by the factor given in the specified function.
lr_scheduler.StepLR	Decay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by gamma every step_size epochs.
lr_scheduler.MultiStepLR	Decay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by gamma once the number of epoch reaches one of the milestones.
lr_scheduler.ConstantLR	Decay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by a small constant factor until the number of epoch reaches a predefined milestone: total_iters.
lr_scheduler.LinearLR	Decay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by linearly changing small multiplicative factor until the number of epoch reaches a pre-defined milestone: total_iters.
lr_scheduler.ExponentialLR	Decay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by gamma every epoch.
lr_scheduler.PolynomialLR	Decays the learning rate of each parameter group using a polynomial function in the given total_iter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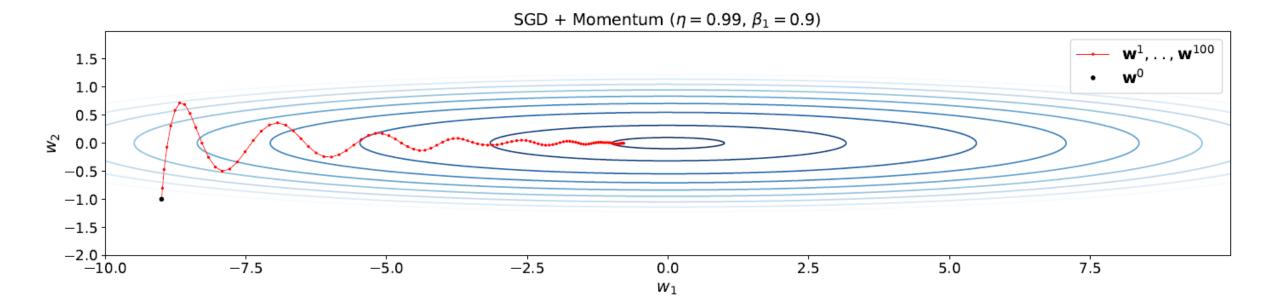


앞서 봤던 것처럼 학습률도 잘 정하고 스케줄링도 잘 해주면 끝일까요...? 이제는 학습이 잘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느립니다.





만약 굴러가던 방향을 기억해서 다음번에 반영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? 평지를 만나더라도 기존 방향을 기억해서 굴러갈 수 있습니다. 현재 위치에서는 위 아래로 가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던 모멘텀이 있기에 최적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



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$$\mathbf{m}^{t+1} = \beta_1 \, \mathbf{m}^t - \eta \,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t)$$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+ \mathbf{m}^{t+1}$$

 $eta_1$  는 이전의 값을 얼마나 기억할지 나타내는 하나의 파라미터입니다. 현재 반영할 모멘텀  $m^{t+1}$  에 과거의 모멘텀  $m^t$  와 현재 gradient 를 더합니다. 그리고 나서 현재 가중치 W를 업데이트 할 때 더해줍니다. (이전에 이동하던 방향을 기억했다가 현재에 더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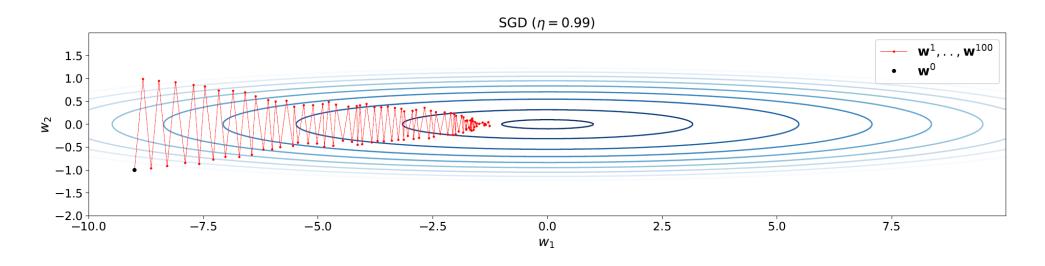
그런데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특정 t 시점의 m에  $eta_1$  이 계속해서 곱해집니다.

$$\mathbf{m}^{t+1} = \beta_1 \, \mathbf{m}^t - \eta \,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t)$$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+ \mathbf{m}^{t+1}$$

따라서  $eta_1$  은 과거의 gradient를 얼마나 기억할지 나타내는 파라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(당연하게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되는데 1에 가까울 수록 오래 기억됩니다.)

# RMSpro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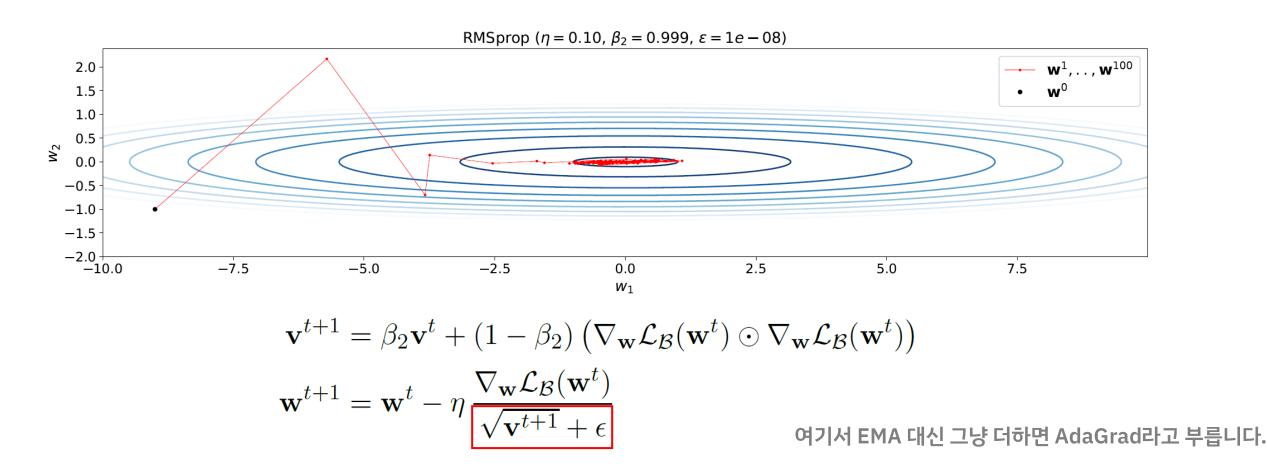
Gradient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특정 방향으로는 되게 큰데 다른 쪽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.



 $W_2$  방향을 보면 크게 움직입니다 (Gradient가 크므로) 하지만  $W_1$  방향을 보면 되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. (Gradient가 작으므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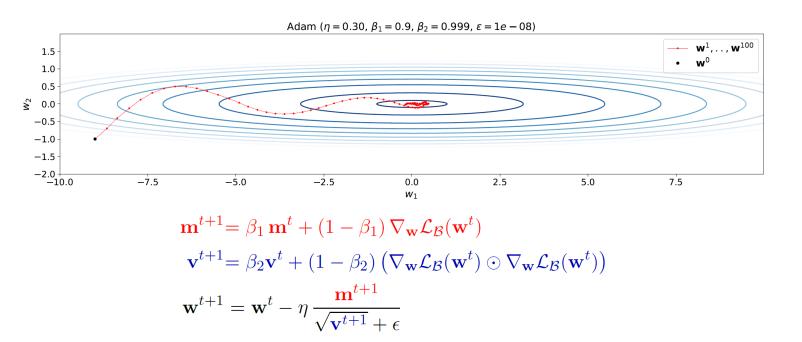
# RMSprop

따라서 최근에 이동한 방향을 기억해줬다가 그 방향으로는 '덜' 움직이면 빠르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.



## Adam = RMSprop + Momentum

a 둘이 섞은 버전입니다. (일반적으로)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

#### **Momentum**

$$\mathbf{m}^{t+1} = \beta_1 \, \mathbf{m}^t - \eta \,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t)$$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+ \mathbf{m}^{t+1}$$

#### **RMSprop**

$$\mathbf{v}^{t+1} = \beta_2 \mathbf{v}^t + (1 - \beta_2) \left(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t) \odot 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t) \right)$$

$$\mathbf{w}^{t+1} = \mathbf{w}^t - \eta \frac{\nabla_{\mathbf{w}} \mathcal{L}_{\mathcal{B}}(\mathbf{w}^t)}{\sqrt{\mathbf{v}^{t+1}} + \epsilon}$$

a) 물론 task 마다 다릅니다. SG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

# Summary

- 1. 모델의 분포와 데이터의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자
- 2. 이 과정에서 두 분포의 차이를 loss 함수로 두고 optimize
- 3. Back Propagation으로 기울기, 즉 Gradient를 구하자
- 4.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, 즉 loss가 줄어드는 쪽으로 Update



### 1. Tubingen University, Deep Learning: lecture 06 Optimization

강의자료: <a href="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QpJWFXLVibJJhYTz8i46j2k0HufnL74G/view">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QpJWFXLVibJJhYTz8i46j2k0HufnL74G/view</a>

강의영상: https://www.youtube.com/playlist?list=PL05umP7R6ij3NTWIdtMbfvX7Z-4WEXRqD

#### 2. Adam 논문

https://arxiv.org/pdf/1412.6980.pdf

### 3. PyTorch LR scheduler Guide

https://www.kaggle.com/code/isbhargav/guide-to-pytorch-learning-rate-scheduling

### 4. PyTorch optimizer docs

https://pytorch.org/docs/stable/optim.html